

社說

아파트 과잉공급 사태 풀어야

포천지역 공동주택 소유주들은 판매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세입자를 찾지 못해 아우성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공급된 아파트 물량에 비해 인구 증가, 즉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관내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매매는 커녕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축 년도가 오래된 빌라 등 공동주택 문제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현재 포천시 지역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은 대략 6천 900여세대다. 여기에 연립빌라 공급량까지 합하면 수치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기간동안 인구는 자연 증가 및 외부유입 인구를 합해도 4천143명, 4천165세대다.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세대수가 인구수 보다 많은 것은 포천시 인구통계에 의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市관계자는 관내 거주자들이 송우주공으로 전입하기 전에 세대분리를 했기 때문에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아파트 과잉공급은 상가분양이나 임대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물론 경기부활 여파가 크게 작용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과잉공급이 상가분양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천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천시의 근본적인 현안사항을 풀어야 한다.

첫째는 교통문제 해결이다. 출퇴근 시간에 포천에서 의정부를 나가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서울까지는 2시간 가까이 소요되어 서울 배우도시로서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서울 무주택자들이 포천지역으로 유입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예를 들면 경기남부 지역은 논외로 하더라도 파주나 김포, 양주, 남양주 등은 상대적으로 서울인구 유입 요인이 많다. 이들 지역은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교육문제다. 포천시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를 들 수 있다. 교육이라는 단일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지역사회의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포천지역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서울 강남이나 의정부에서 출퇴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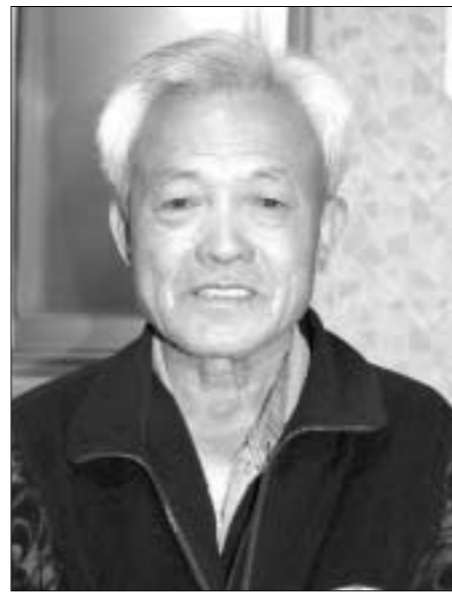
왜냐하면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다. 또 중학교 학생들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많은 학생들이 외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을 매년 볼 수 있다.

인적자원 유출은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말이다. 포천에 우수한 고교를 유지하거나 기존 학교를 우수 고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포천지역 중소기업체들은 경기부활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이들 중소기업체들은 그동안 포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하지만 이제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대외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첨단산업체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어야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 올 것으로 보인다.

郷土원로초대석 ⑱ …… 前 직두리 산림계장 채희영



채희영 전직두리 산림계장

바르게 살자, 부지런하자, 더불어 살자를 생활철학으로 삼아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회공동체 의식으로 살아온 채희영(74·사진) 전 직두리 산림계장은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에서 10대가 대대로 살고 있다.

채씨는 일제시대에 태어나 청성초등학교 3학년때 모친의 병환으로 집안의 전 재산을 소비하고 부친과 함께 가산에서 나무

忠·孝·禮를 숭상하는 전통 가문의 가풍 계승

“내가 할 일을 힘 닿는 데까지 다하면 일등이다”

를 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한다. 6학년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못나가고 부친과 함께 나무를 하러 나서야 했다고 한다.

수원산에 솟가마 사업이 한창 진행될 당시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솟을 잘 구워서 3~4개월 팔아 현재 집터와 인근 부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채씨는 솟을 잘 굽기 위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채씨는 군내면 직두리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로 선임되어 '군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기조로 마을의 공동 주택사업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1978년 군내면 직두리 산림계장 재직시 치산녹화사업에 크게 공을 세워 경기도 낙엽송 조림왕으로 추대 받은 후 훈장을 수상하고 직두리 전기가설추진위원장을 역임, 전기를 완벽하게 가설한 후 농촌 근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채씨는 국무총리 표창, 내무부장관 표창, 경기도 낙엽송 조림왕, 경기도지사 표창, 보병 제21

대 용과 공개 성장하여 청성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채씨는 농촌중견 청년교육과정 및 재건국 민운동 중앙교육, 농협지도자교육, 경기도 향교재단(인성교육 현장교실) 교육을 수료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채씨는 군내면 직두리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로 선임되어 '군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기조로 마을의 공동 주택사업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1978년 군내면 직두리 산림계장 재직시 치산녹화사업에 크게 공을 세워 경기도 낙엽송 조림왕으로 추대 받은 후 훈장을 수상하고 직두리 전기가설추진위원장을 역임, 전기를 완벽하게 가설한 후 농촌 근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채씨는 국무총리 표창, 내무부장관 표창, 경기도 낙엽송 조림왕, 경기도지사 표창, 보병 제21

사단장 표창, 보병 제65연대장 표창, 체씨대종회 표창, 체씨종친회 경기도지회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1957년3월20일 군 복무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채씨는 당시 뽕나무를 해서 팔았는데 당시에 뽕나무 한 짐에 400원, 하루 농사나 품삯이 500원 하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한다. 이때 쌀 1말은 2천300원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5일을 품팔이로 쌀 1말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농협에서 수매한 쌀(1등급) 1가마(80kg)가 5만3천원으로 하루 품삯(약노동) 7~8만원보다 적은 것과 비교된다.

“내가 할 일을 힘 닿는 데까지 다하면 일등이다”는 생각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온 채씨에게서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된다. 50년전의 상황을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채씨의 경험담과 체험이야기는 밤을 세워 들어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어려운 세월을 헤치고 살아온 채씨의 얼굴에서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진

경북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1996년 경북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포천시와 인연을 맺게 된 김영진(·사진)교수는 그동안 포천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私心없이 公共의 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9월부터 포천시청소년상담센터 소장직을 맡아 수행하면서 포천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 온 김교수는 지난 10월19일 제3회 포천시문화상을 수상해 지역사회개발의 공을 인정받기도 했다.

최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를 맡아 공평성과 사회정의의 원칙으로 세우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기구 역할은 물론 상담역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포천시는 다행스럽게도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이

인물포커스



사자가 투입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포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전문적인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포천시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김교수는 지역사회가 이같은 전문가 양성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포천시가 사회복지공동체로 마련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만간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택곤

승화식품 대표

지하 200m에서 용출되는 암반수를 이용하여 전통방식 절임류를 생산하고 있는 승화식품 김택곤(61·사진) 대표이사를 만났다. 김 대표는 승화식품을 지난 1984년에 설립하여 20여년 넘게 절임류 반찬 생산 국내 최고업체로 성장시켜 왔다.

“정결·믿음·정직”을 사훈으로 삼아 절임 식품의 자존심을 지켜온 김 대표는 특이한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연구하고 관찰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하는 데 노력해왔다. 일례로 ‘퍼펙트’라는 고추씨를 싣고 기우어 여섯 개에 9천원에 판매하기도 한다.

지역사태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재료가입에 있어 고추의 경우 전량을 영북면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구매한다. 또 지역 주민들 중에서 어렵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드러나지 않게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영북면 주민들로 이들에게 지급되



을 널리 홍보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표가 그동안 이룩한 실적을 보면, 2002년 김치개발 부문 유관상품 동상수상, 2003년 5월 세계음식박람회(COEX) 동상 수상, 2003년 6월 부산국제식품박람회(BEXCO) 참가, 그해 10월 미국 뉴욕식품박람회 참가, 2004년 5월 하이서울 참가 등으로 절임류 반찬의 세계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私心없이 公共의 善을 추구한다”

“포천시를 아시아 청소년 교육의 메카로 가꾸겠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이 지역사회를 보다 밝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여론수렴 과정을 통한 것이다. 여론수렴과정을 보다 더 확대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포천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각 분야가 망라돼 있다고 한다.

또 포천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공론화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를 실시해야 하며 이 대목에서 지역언론매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포천신문이 보다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3회 포천시 문화상 수상에 대해 김교수는 “한 일에 비해 너무 큰상을 주셔서 죄송할 따름”이라며 “더욱 열심히 일하려는 체적으로 알고 좀더 객관적이고 공평한 입장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치역량강화를 들 수 있다. 김교수는 일등도시 사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이 설립되었을 때 전문가의 운영이 요구되는데 지역에 전문가 그룹이 없어 불거피하게 자원봉

“私心없이 公共의 善을 추구한다”

“포천시를 아시아 청소년 교육의 메카로 가꾸겠다”

사회복지공동체사업이 추진되면 가장 먼저 결식아동 없애기를 추진하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12월 첫째주 사회복지대표자 회의에서 사회복지공동체사업 조성 위한 모금운동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김교수는 이같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포천신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역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교수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사회적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원칙과 포천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앞으로 포천시 청소년들이 아시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포천시가 아시아청소년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고 자원봉사 활성화가 가장 잘 된 도시, 경북대학이 지역대학으로 경제·문화활동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포천시민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보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했다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의 特産物 · 절임식품의 自尊心’

生活信條“성실하게 내 임무에 충실하며 산다”

는 월급만도 수천만원에 이른다.

김 대표는 경동시장에도 상가를 마련해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새벽3시부터 8시까지의 김 대표가 경동시장을 지킨다. 120여개 경동시장 지하상가 상주회장을 맡아 아침8시부터 오전중에서는 상주회사 사무실에 출근한다. 또 경동신협 산악회장으로 매월 1회 산행을 실시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80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해 목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김 대표는 “성실하게 주어진대로 내 임무에 충실하며 산다”를 생활신조로 삼아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 대표는 매년 포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축제의 현장에는 늘 승화식품에서 생산하는 각종 절임류 반찬을 시식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 대표가 생산하는 장아찌류, 조림류, 무침류, 찜갈비, 건어물류 등은 타 업체에서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이와 같은 맛이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깊은 산속의 공기와 온도 등에 영향을 받아 더욱 신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포천시 특산물로 절임류 반찬

‘포천의 特産物 · 절임식품의 自尊心’

生活信條“성실하게 내 임무에 충실하며 산다”

를 널리 홍보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표가 그동안 이룩한 실적을 보면, 2002년 김치개발 부문 유관상품 동상수상, 2003년 5월 세계음식박람회(COEX) 동상 수상, 2003년 6월 부산국제식품박람회(BEXCO) 참가, 그해 10월 미국 뉴욕식품박람회 참가, 2004년 5월 하이서울 참가 등으로 절임류 반찬의 세계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대표는 처음 사람 사귀는 것이 서툴러 아직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한 번 사귀면 오래 사귄 수 있다며 운영위원들과 먼저 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포천신문이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정문지로 더욱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직접 앞치마를 입고 행주를 세척하며 절임류 반찬생선현장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김 대표는 원래 부산이 고향이며 1963년에 서울에 올라와 1970년에 월남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이웃을 돕는 정신에 대해 김 대표는 그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뿐이라며 이같은 마음으로 사업을 하되 보니까 사업도 잘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승화식품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포천시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하고 포천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김 대표는 노년과 젊은이들이 함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포천신문이 더욱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매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창간 제16주년 기념식 협조당부

조사위원회 제10차 임원회의의 안건토의



본지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중현) 제10차 임원회의가 지난 1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사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기사제보의 건, 본지 제16주년 창간 기념식 준비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했다.

조사위원들은 송우리 진입도로 설계가 잘못되어 2층으로 포천시 예산이 틀어갈 수 있다 그 결과와 우리방송이 유선방송 수신료를 아무런 통보없이 인상해 영문도 모르는 시청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고 제보했다.

아울러 조사위원들은 이같은 제보가 접수될 경우 신문사 측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 때 알려 줄 것 또한 요청했다.

김중현 조사위원장은 인사말을

“私心없이 公共의 善을 추구한다”

“포천시를 아시아 청소년 교육의 메카로 가꾸겠다”

통해 “그동안 조사위원들이 기사제보에 많은 신경을 써 고맙다”면서 “앞으로 임원들의 더 많은 기사제보를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시작한 연중 불우이웃돕기 창구가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다”면서 “많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위원들은 주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효열 본지 발행인은 “그동안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조사위원들의 많은 제보와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 “독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기사제보와 포천이 밝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사제보를 많이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최 발행인은 “오는 12월15일 본지 창간 제16주년 기념식을 송우리웨딩홀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하고 “조사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에 협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승민 기자 forme65@paran.com

‘사랑의 김치’ 전달 결산보고

주부명예기자단 제8차 정기회의

본지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임경순) 제8차 정기회의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사랑의 김치’ 전달 결산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은미 총무는 “사랑의 김치 전달식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주부명예기자단의 단결된 힘이 놀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봉사를 위

면지부장인 김순희 주부명예기자를 임명하는 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친근한 벗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기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의결하기도 했다.

또 이날 신임 주부명예기자단 19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앞으로 다양한 취재 및 보도활동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

이날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임경순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랑의 김치 전달운동에 협조해 주신 주부

명예기자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주부명예기자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신규위촉된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용미▶황은남▶윤미숙▶박형민▶김진남▶지선화▶노현숙▶강선애▶김건희▶김성수▶송영애▶이연옥▶이행자▶고숙희▶홍은주▶오은경▶김정순▶강진옥▶조종민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제8차 정기회의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사랑의 김치’ 전달 결산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p>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p>	<p>포천신문 http://www.ipcs21.com</p>
<p>발행처: (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로로: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p>	<p>사훈: 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傳達)</p>
<p>대표전화 (031)542-1507 편집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p>	<p>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효열 편집인 구봉주 편집국장 김영복 인쇄인 김규석</p>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